

耽羅文獻 解題 (1)

— 口碑文學 · 民俗學① —

강정식* · 좌혜경**

이번 호부터 탐라관계 논저에 대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심기로 한다. 탐라고 문서를 비롯하여, 간행된 지 오랜 탐라학 연구논저를 주대상으로 하여 해제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해제작업의 결과가 일정한 분량이 되면, 단행본으로 묶어 출간할 예정이다. (구비문학, 민속학 논저에 대한 해제를 먼저 한다. -편 집자)

1. 金永三 編·韓容柱 蒐集, 『濟州民謠集』(서울:中央文化社, 1958. 4., 188면).

이 책에 실린 자료는 편자의 제자인 한용주 등이 수집한 것이다. 이를 편자가 항목을 나누고, 가능한 대로 제주어 표기를 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인쇄소에 필요한 활자가 두루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래아 표기 이외에는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각편마다 어려운 낱말에 대한 풀이를 해놓았다. 나누어 놓은 큰 항목 첫머리에 대강의 설명을 달아 놓았으며, 후기에 제주민요에 대한 편자 나름의 해설을 덧붙여 놓아 편자의 민요 이해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범례에서 “같은 내용의 민요가 외형만 조금씩 달라진 것,” “허다히” 많은 “모방작” 등은 실지 않았다고 한 데서 편자의 민요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요는 각편으로 존재하고, 그 각편은 주로 모방으로 파생되며, 그러한 각편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편을 가름에 있어 발생근거에 가까움에 따랐”다고 하고, ‘오돌토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조교

** 제주대 국어교육과 강사

기, 해녀노래, 뱃노래, 어부노래, 따빚노래, 발 발리기노래, 방아노래, 맷돌노래, 검질노래, 나무깨는 노래, 타작노래, 양태노래, 시집살이 노래, 첩노래, 원정가, 상여노래, 팔자노래, 과부노래, 자장가, 달구노래'로 나누어 놓았다. 그러나, 편의상 <이야흥>을 「오돌또기」편에 함께 묶어 그러한 분류가 엄정한 분류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각편의 제목은 기존에 이미 굳어진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오돌또기, 이야흥 등)도 있고, 가사 중 특정 대목을 받아들인 것(내가 잘못, 잡을 년아 등)도 있어 일관성은 없으나, 후자의 경우 대체로 해당 각편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변별력을 지니고 있어 상당한 고심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수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오돌또기(2편, 이중 1편은 이야흥임), 해녀노래(총각차라 등 17편), 뱃노래(이여싸 등 7편), 어부노래(강갈치 등 3편), 따빚노래(두가달 따비 등 2편), 발 발리기노래(석섬 단말지기 등 2편), 방아노래(가시 오름 등 9편), 맷돌노래(지남석 가래 등 10편), 검질노래(앞명에 뒷명에 등 5편), 나무깨는 노래(요산중에 놀던낭가 등 4편), 타작노래(고구리 등 5편), 양태노래(한코 두코 등 7편), 시집살이 노래(물넘어 산넘어 등 10편), 첩노래(양첩한 늬아 등 7편), 원정가(내가 잘못 등 6편), 상여노래(복장 산천 등 3편), 팔자노래(잡을 년아 등 5편), 과부노래(열손 받아 등 13편), 자장가(우리 애기 등 4편), 달구노래(천년 만년 등 2편) 총 123편

자료의 제시방법에 있어서는 제주어의 특수어휘에 한해 간혹 주석을 다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후대 민요자료집의 선행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편자 자신이 제주사람이 아니어서, 제주민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제주어에 대한 주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취해진 방식인 듯하다. 그러나, “의견이 구구한 것(제각기의 학설로 증명된 단어등)은 확실한 가장 믿음직한 것만 뜻의 주석을 달고 그렇지 못한것은 모두 발을 안달았”(범례 五)다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본격적인 주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한편, 제주민요의 특성에 대해서는 후대 연구가들이 제시하는 것과 거의 같

1) 한편, 후대 홍정표와 김영돈의 자료집에서는 전문표준어역과 낱말주석을 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耽羅文獻 解題(1)

은 맥락의 언급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平俗됨이 없이 生活의 빈궁에서 오는 절박한 정신에 근거를 두게 되는 근면한 여성들의 삶의 형태가 주로 제주민요를 낳게된 원인”이라 보고, 제주민요에는 섬의 독특성이 반영되어, 격정적, 낭만적, 배타적, 독선적인 면모 외에 자립성, 반항정신이 강한 진취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몽고를 비롯한 외국의 것을 언어, 민속, 율격 등 여러 면에서 포함하여 제것으로 소화해낸 것이라고 보았다. 형식면에서는 그 律을 ‘四·五調(간혹 三·四)’라고 파악하고 있다.²⁾

한편 편자는 “제주의 특징이 적절히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음곡이 현대적인 감정에 마임기때문”(1면)에 <오돌또기>가 가장 제주적인 민요라 하고 있다. 그러나, 편자가 앞서 제시한 제주민요의 특색과 <오돌또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자는 이 노래에 대해 “약 팔구십년, 이전부터 불리워진 듯”하다(내표지 <오돌또기> 악보 하단의 설명)고 하면서, 그 발생 시기까지 추측하고 있어 흥미롭다.

다만, 제보자,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결국, 이 책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주민요에 대한 소박한 느낌 이상의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편자가 『編後記』에서 “民謠는 文學의 起源이라고도 합니다.”고 하면서 민요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민요 연구서가 아니라 단순한 자료 집임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책에 실린 123편이라는 자료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출간되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여, 제주민요 조사 연구의 선행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

2. 洪貞杓 著, 「濟州島 民謠 解說」(省文社, 1963, 300면)

저자는 자서에서 민요의 조사, 연구가 시급해진 상황을 “사십여년전만 하드

2) 여기에 대해서는 홍정표, 진성기도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자료 2번, 7번 참조.

라도 본도의 어느 가정에서든지 남방애(절구통)를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쌀을 찻는데 으레 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했었다. 그러든것이 지금에 와서는 마을 곳곳마다 문명의 이기인 동력 정미기가 대치되면서 쌀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기계방아 정미기에 의존하게끔 되면서 「남방애」는 종적을 감추게 되고 그와 함께 부르든 민요도 역시 발 붙일 곳을 잃게 되어 차츰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오랜 동안 수집한 제주도 민요 중 ‘비교적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추려(저자 서문),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3편에는 곡을 붙이고, 130편의 자료는 사실만 실었다. 원자료 밑에 표준어역을 하고, 간혹 어려운 낱말에 대해 주석을 달았으며, 자료가 실린 맞은 편 쪽에 그 민요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놓아 이해를 돕고 있다. 표기는 가능한 대로 제주어 음운을 살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문을 쓴 이승녕은 “순수 본도의 특색을 갖춘 민요를 채취하고 육지민요의 혼입이나 번안을 식별 배제하여 자료의 정선에 엄격하였으며 그 방언에서 오는 난해에 대한 친절한 주석과 가사 자체의 주변작사의 동기내용의 해설등 여지껏 보여준 민요집에 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꾀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사자체의 주변작사의 동기내용의 해설”이라고 한 것은 각편의 구연상황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일반적인 구연상황에 대한 해설이다.

자료는 분류없이 나열식으로 제시하였으며, 민요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에 일정한 원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있노라고 자세를 말라”로 시작되는 민요의 제목은 〈있노라고 자세〉로 되어 있고, “훈 밍실에 세 첩 훈 놈아”로 시작되는 민요의 제목은 〈훈 밍실에〉로 되어 있다.

한편, 책의 맨 끝에 「濟州島 民謠 概說」란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간행된 김영삼 자료집의 「編後記」의 간단한 언급보다는 진보된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한국민요의 대표격은 〈아리랑〉이고, 제주민요의 대표격은 〈오돌또기〉라고 하면서, 〈오돌또기〉를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보는 점에서 김영삼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 내용면에서는, “정녕 「아리랑」이 한국의 낭만이라면 「오돌또기」는 틀림

耽羅文獻 解題(1)

없는 제주도의 낭만일 것이다.”고 하여 민요의 낭만적인 면모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육지부 타지방에서 불리워지는 민요는 비교적 민중의 운택한 생활에 있어서의 부산으로 유희행락에의한 藥 에 지나지 않으나 본도 민요만은 그와 상반하여 노동으로 생계를 삼던 부녀의 고역에 시달리는 기갈의 심정을 스스로 醫癒하고 운기있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고 하면서, 제주민요의 특색을 그 사회의 생활방식을 준거로 삼아 달리 설명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힘든 노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그 노래 또한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불려지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그 형식면에 있어서는, 제주민요 대부분이 정형적으로 4, 5의 율조로 구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정하고도 참된 심정의 근저에서 울어나온 그 謠인 까닭에 「리듬」과 「멜로디」에 있어서는 그리 풍유한 맛은 많지 못하나 거기 추호도 가장이 없으며 솔직하여 수식이 없다.”고 보고, 이는 제주도민들이 본래 자연적 미의 素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분류기준이나 제목을 따로 설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 단순한 자료소개에 만족하고자 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자료집에도 역시 제보자,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에 대한 소개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요 각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은 높이 살만 하다. 책의 제목에 ‘해설’을 내세운 데서도 저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3. 赤松智城·秋葉 隆 編, 「朝鮮巫俗の研究」 上(서울:大阪屋號書店, 1937)

한국의 무가 72편이 실려 있는 가운데 제주도 무가 16편이 ‘濟州島 神歌’라는 항목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제주도 무가는 모두 서귀포 남무 朴奉春 口誦本이다.

수록된 16편은 아래와 같다.

〈서귀본향당본푸리〉, 〈토산당본푸리〉, 〈초감제〉, 〈초공본푸리〉, 〈이공본푸리〉, 〈삼공본푸리〉, 〈세경본푸리〉, 〈천지왕본푸리〉, 〈원천강본푸리〉, 〈세민황제본푸리〉, 〈명진국생불할망본푸리〉, 〈신중도푸리〉, 〈체사본푸리〉, 〈칠성본푸리〉, 〈군농본푸리〉, 〈문전본푸리〉

본풀이를 한글로는 '본풀리'로 기록하고, 일어로는 '本解'로 대역해 놓고 있다. 새로 편집으로 상단, 하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원문을, 하단에는 일어로 대역을 해놓았다. 각주가 필요한 것은 일어 대역문의 끝에 번호를 달고 미주 처리해 놓고 있다. 일어 대역문에는 또한 대화부분을 「 」로 구분해 놓고 있다. 표기면에서는 고어표기를 하는 등 현실발음을 충실하게 옮겨 놓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만, 구어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어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사물맞친후에얼굴을피차보니/서로반하얏다”

“의의에미녀가형낫타났다/그것은고산국보담도멧배나홀농한편하절색의처
자였다”

(342-343면)

이는 현장조사가 아니라는 증거인데, 이 때문에 이 책의 자료적 가치도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겠다. 총독부의 행정적 힘에 의지해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일정하게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주요 본풀이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조사자료라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아직껏 유용한 자료집으로 인정되고 있다.

4. 張壽根 著, 「韓國의 神話」(成文閣, 1961, 251면)

韓國의 神話を 개괄하면서, 본격적인 학문적 해석을 곁들이고 있는 책이다. 한국의 신화에 대한 주목할 만한 논의가 많아 아직까지도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신화'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도 구비신화 특히 제주도 신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이는 그 내용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도 신화는 <삼성신화>, <송당본향당본풀이>, <문전본풀이>, <삼신본풀이>, <세경본풀이>, <구농본풀이>, <차사본풀이>, <삼공본풀이>, <설문데할망> 설화 등이다.

耽羅文獻 解題(1)

〈설문대할망〉 설화는 ‘하늘과 땅이 생긴 이야기’라는 항목에서 개벽신화로 거론하였다. 그러나, 뒤에 개벽신화로 널리 알려진 〈천지왕본풀이〉는 함께 거론하지 않았다. 〈삼성신화〉에 대해서는 사시복지, 처녀표착 화소 등이 현재 전승되는 당본풀이에서도 중요한 화소로 삽입되어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근거로 무가에 기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유교의 영향과 족보화를 거치면서 합리화되어 온 것이라 하였다. 한편 그 종교적 기반은 뱀토텐이며, 사회적 기반은 씨족연합의 부족사회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삼공본풀이〉를 분석하면서도 그 이야기의 근원이 옛말「설화」에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화와 판소리, 고대소설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신화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논의를 폈지만, 지면관계상 줄인다.

저자는 제주도에서 직접 오랜 동안 현장조사를 한 경험을 살려, 제주무가를 본격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현지조사를 연구로 연결시킨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신화가 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고하게 해준 저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문학 연구자들이 제주도의 설화 유산을 언급한다고 해도 삼성신화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료의 범위를 설화와 무가로 크게 확장해서 다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5. 진성기 著, 『濟州島巫歌集』 I · II (프린트판, 1960 · 1963)

『濟州島 巫歌集』 I 에는 일반본풀이 12편과 비님 15편이 수록되어 있고, II 에는 일반본풀이 7편과 기타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주석이나 해설이 따로 없다. 그 목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무가집 I〉

제1부 닛두리비님

- 1) 할망상 놓을 때
- 2) 닛드릴 때
- 3) 초감제
- 4) 하정
- 5) 푸다시

제2부 무당의 열두본푸리

- 1) 초공본
- 2) 이공본
- 3) 삼공본
- 4) 문전본
- 5) 할망본

- 6) 칠성본 7) 지장본 8) 저승본 9) 맹감본 10) 체사본
11) 천지왕본 12) 세경본

제3부 기타 비념

- 1) 조왕경 2) 첫 안날 때 3) 기도할 때 4) 애기 빌 때
5) 입담할 때 6) 칠성제 7) 굿할 때 8) 애기 넘어진 때
9) 혼 드릴 때 10) 애기 괴로운 때

〈무가집 II〉

제1부

- 1) 옷당본 2) 알당본 3) 토조관본 4) 도업 5) 가신공신

제2부

- 1) 초공본 2) 문전본 3) 할망본 4) 칠성본 5) 지장본
6) 맹감본 7) 체사본

제3부

- 1) 질드리 2) 군웅만관 3) 선왕노래 4) 님두리비념
5) 성주푸리 6) 영감본

위에서 보듯, 비념을 님두리 비념과 기타 비념으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로 묶기도 한 것에서 일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석이나 해설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 제주 방언과 기타 관련 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 진성기 著, 「南國의 巫歌」(프린트판,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974면)

이 책에는 일반본풀이 12편, 당본풀이 130편, 특수본풀이 12편, 기타 비념 24편 등 모두 178편의 무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무가집은 이전에 간행되었던 「濟州巫歌集」 I·II 집의 것을 한데 묶어 재수록하고 새로 조사된 각지의 당본풀이와 기타 세민황제본풀이 등을 추가한 것이다. 해설이나 주석이 되어 있지 않고 채보자의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성별, 나이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총 251개소(본향당 140개소, 사라진 당 11개소, 기타 개당 등 111개소)의 당에 대한 조사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수록된 무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부 일반본풀이편

耽羅文獻 解題(1)

- 1) 초공본 2) 이공본 3) 삼공본 4) 문전본 5) 할망본
- 6) 칠성본 7) 지장본 8) 저승본 9) 맹감본 10) 차사본
- 11) 천지왕본 12) 세경본

제2부 신당편

- 1) 제주시 2) 조천면 3) 구좌면 4) 성산면 5) 표선면
- 6) 남원면 7) 서귀읍 8) 중문면 9) 안덕면 10) 대정읍
- 11) 고산리 12) 한림읍 13) 애월면

제3부 특수본풀이

- 1) 세민황제 2) 동방세기 3) 원천강 4) 허웅애기 5) 영감
- 6) 옷당 7) 알당 8) 산신 9) 조왕 10) 용왕
- 11) 열두선앙 12) 십이대왕

제4부 기타 비념편

- 1) 할망상 놓을 때 2) 녀드릴 때 3) 초감제 4) 하정
- 5) 푸다시 6) 젓 안날 때 7) 기도할 때 8) 애기 빌 때
- 9) 입담할 때 10) 칠성제 11) 굿할 때 12) 애기 넘어진 때
- 13) 혼 드릴 때 14) 애기 괴로운 때 15) 도업 16) 가신공신
- 17) 새드림 18) 군웅만판 19) 선왕노래 20) 녀두리 비념
- 21) 성주풀이 22) 뱀 때려 죄 받을 때 23) 귀신 치송법
- 24) 비념할 때

일반본풀이를 12개로 제한하고, 당본풀이, 특수본풀이, 비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념편의 항목명만 보아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한 것도 적지 않다. <굿할 때>, <비념할 때>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이 책에는 무가자료 외에 「제주도무속신앙의 의의」, 「신당분포도」, 「제주도무가 보유자 명단」, 「수집기」, 「수집동기」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특히 2부 신당편에는 제주 각지의 당본풀이가 소상하게 조사보고 되었으며, 그 본풀이의 전승 현장인 당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포도를 작성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서문에서 최현배가 “이제 진성기 군이 제주대학 국문과 졸업을 앞두고, 그 간 캐어모아 오던 제주도의 무당의 노래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낸다 하니, 참 고마운 일이다.”(3면)한 것으로 보아, 학부시절의 조사자료임(「일러두기」에는 1956.3-1963.7로 수집기간을 명기하고 있다.)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민속 자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편저자

는 “문헌의 전거에만 의존한다면 기록이 있어야만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기록이 없어도 전승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제주도 무속신앙의 의의」, 11면)고 한 데서 구비전승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고, 특히 구비역사로서 구비전승을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무속신앙은 다 제주도민의 생활과 더불어 겪어온 역사적 변천의 여러 단계를 말해주는 것”(「제주도 무속신앙의 의의」, 13면)이라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가지 본풀이에 있어서도 여러편을 같이 잇달아 실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일러두기, 20면)하였다는 대목에서도 그의 구비전승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이 말은 곧 각편의 의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7. 진성기 著, 『南國의 民謠』(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245면)

『南國의 民謠』(1958), 『濟州島의 民謠』(1960) 등으로 간행되었던 것을 함께 묶어 낸 것으로 1,5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서문 「3판을 내면서」에서 제주 민요의 특색을 개관하였다. 제주민요는 4·5조의 간결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민요는 “민중 생활의 한 집약적 표현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담백 반영한 인정의 거울”이라고 하면서, 특히 〈시집살이 노래〉를 대상으로 제주 여성들의 생활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

「제주도민요분류일람표」에서는 제주도민요를 창자를 기준으로 남요, 여요, 남녀요로 3대분하고 다시 하위분류하였다. 그 분류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 남 요 :

1. 오락가 : 장기노래, 골패노래, 걸궁노래
2. 만 가 : 상어노래, 달구노래
3. 근로가 : 어부노래, 밭가는 노래, 자귀질 노래, 도끼질 노래, 톱질 노래, 불무질 노래

二 여 요 :

4. 자탄가 : 과부 노래, 시앗노래, 시집살이 노래, 팔자 노래
5. 情 歌 : 자장가, 연가, 원정가, 육친가, 딸 자랑가
6. 경세가 : 혼제가, 양반가, 실화가

耽羅文獻 解題(1)

7. 근로가 : 해녀 노래, 멧돌노래, 방아노래, 베틀노래, 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三 남녀요 :

8. 타 령 : 오돌또기, 이야옹, 영주십경가, 봉지가, 잡타령, 군인노래
9. 근로가 : 밭밧는 노래, 곰배질 노래, 타작노래, 따비질 노래, 김매는 노래
10. 동 요 : 유희요, 聲戲謠, 해학요
11. 토속가
12. 문답가

위에서 보듯 중간항은 오락가, 만가, 근로가 등등처럼 편의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오돌또기>, <너녕나녕>, <멧돌노래>, <김매는 노래>, <팔자노래>, <방아노래>, <봉지가>, <영주십경가>, <이야옹>, <해녀노래>, <타작노래> 등은 악보를 수록했다. 사설자료는 세로 편집으로 상단에는 원문을 수록하면서 주석이 필요한 곳에 각주번호를 달고, 하단에 그 어석을 각주 처리해 놓았다. 한편 「일러두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능한 한 제주어 표기를 살리려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아는 현대어의 가까운 음으로 고쳐 표기하여 일반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8. 文彰憲 騰·文貞奉 書寫, 「風俗巫音」(筆寫本, 1928騰, 1945書寫, 총 485면)

* 세로 22자×가로 20줄

제주도 전승무가 일반본풀이와 교술무가, 당본풀이를 거의 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필사본이다. 만들어진 시기와 체제를 보진대, 학문적 관심에서 이루어진 구전자료의 채록은 아니다. 제주무가 조사자료로 이른 시기에 나왔다고 하는 赤松智城·秋葉 隆編著, 「朝鮮巫俗の研究」上(大阪屋號書店, 1937)이 거의 10년 뒤에 출간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직 본격적인 무가조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것이므로 학문적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주무가의 고태를 충실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참고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편의상 가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산천영귀, 모흥굴서, 제요도당, 울축삼월, 열사혼날, 자시생한, 고을나을, 왕오로, 쟁기고, 축시생한, 양올나는, 신하되고, 인시생한, 부올나을, 백성삼아, 도읍하던, 국입내다, 고랑부삼성이, 모흥굴로, 소사나니, 모라국입내다, 옛날옛적, 고의왕이, 등극할때, 골을, 갈아, 일도성안, 고씨성, 이도산방, 양씨성, 삼도토산, 부씨성을, 살렸음내다.

(山川靈氣毛興穴西帝堯陶唐乙丑三月十三日子時生限高乙那乙王午路事爲古丑時生限乙那隱臣下爲古寅時生限夫乙那乙百姓爲牙都邑何饑國王乃多高良夫三聖伊毛興穴湧出尼毛羅國王乃多古日古跡高之王伊登極割時邑乙分何如一都城内高氏姓二都山方良氏姓三都土山夫氏姓乙居住式如習乃多) (卷之一 5면)

이 책에 실려 있는 「초감제 국도장갈림굿」중 「삼성신화」관련 대목이다. 세로로 되어 있는 한줄은 한자로 기록되었고, 다른 한줄은 한글로 기록되었다. 한자의 글자 수에 맞추어 한글을 기록하기도 하고, 간혹 한글의 글자 수에 맞추어 한자를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서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자의 영향으로 한글이 잘못 표기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王午路事爲古 왕오로 쟁기고: '午路'는 '오로'여야 하고, 侍從入皿 시종들명: '皿'은 '명'이어야 한다.),³⁾ 그 저본도 본래 한자로 먼저 기록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이처럼 한글도 함께 적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한자로 기록한 사람이 한문을 잘 했던 것은 아닌 듯 하다. 고랑부 '三姓'을 '三聖'이라 기록한 것과地名인 '산방'이 '山方', '山房'으로 혼란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⁴⁾

한편 한자표기는 주로 쉬운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것

3) 제주방언 '-명'이 이 책에는 모두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글을 적은 사람이 제주방언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듯하다. 이는 한자 '皿'으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음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듯하나, 제주방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자음을 그대로 따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풀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부분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가에는 상당히 익숙해 있었기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비슷한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착오로 보아 넘길 수는 없을 듯하다.

耽羅文獻 解題(1)

이 아니며, 한글 풀이도 마찬가지이다.

- 1) 城内=성안, 爲古=되고
- 2) 代邑乃多=대읍내다(되읍니다, 卷之二 1면)
- 3) 居住式如習乃多=살렸읍내다(살게 하였읍니다)

1)은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지만, 2)는 1)의 '爲古'의 표기원칙에 따르면 '爲邑乃多'로 바꾸어야 하고, 3)은 해당 한글 문구를 '거주시겼읍내다'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한자의 음과 훈을 활용하면서 일정한 원칙이 없어 이두식 표기와도 큰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과 같은 예는 한자로 기록한 사람과 한글을 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인이라면,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전자료의 채록은 아니라면, 이것은 무당의 학습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모든 자료는 중복되지 않게 되어 있고, 그 순서도 정연하게 되어 있으며, 굿하는 기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아무개 식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도 이도 삼도리 마을 갈라 아모마을 동내는 갈안보난 아모동내 대로들
어 소로상계 어느골목 곱이 첩첩드러사면...(하략)...

(卷之一 6면, 원문은 띄어쓰기 안됨)

무당은 기억에 의존하는 학습방식을 택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처럼 글로 쓰여진 학습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주도에서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歲戊辰三月日 孤松 文彰憲 騰, 歲乙酉 臘月日 於東京 田村町 寓居 文貞奉 書寫”라고 기록되어 있다. 戊辰年은 1928년, 乙酉年은 1945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은 1928년 이전에 이미 기록되고, 여러번 복사되었으며 1945년에 이르러 다시 이 책과 같이 정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습무인 문씨 무당집안에서 오랜 동안 학습서로 전해져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분명치 않다.

이 책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모 장서가가 일본에서 발견하여 가져왔다고도 하고, 대정읍 여십방인 모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얻어 왔다고 하기도 하나 분명치 않다.), 시중 복사점에서 복사 제본하여 판매를 함으로

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이 때 양면복사를 하면서 본래의 한 면을 두 면으로 나누고 권별로 따로 되어 있던 페이지 번호를 모두 연결하여 써넣었다. 이렇게 되자 전체적으로는 본래의 갑절인 970여면이 되었다.).

9. 玄容駿, 「濟州島무당굿놀이概觀」/「濟州島무당굿놀이概觀 補充版」
(文化財管理局, 1965, 155면/61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시도한 전국적인 민간전승 조사자료집의 하나이다. 여기에 조사보고된 것은 시왕맞이, 삼공맞이, 세경놀이, 영감놀이 등이다. 처음에 낸 「개관」에서 제주도무당굿놀이에 대한 '개설'을 해 놓고 있으며, 「보충판」에서는 무당굿놀이 전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보충해 놓고 있다. 「보충판」의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머리말
2. 굿놀이의 기회·목적·종류
3. 굿의 준비·무장·무구
4. 굿놀이의 형식
5. 굿놀이의 요소
6. 무경
7. 결어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굿놀이의 전승실태에 대한 단순한 조사보고가 아니라, 학문적인 분석노력이 가미된 본격적인 조사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에는 관련 사진이 실려있지는 않으나, 실제 조사시에는 녹음기와 사진기가 동원되었다. 이들 보고서에 실려있는 자료와 해설은 나중에 발간된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의 토대가 되고 있다.

10. 玄容駿 外 3人, 「部落祭堂」(文化財管理局, 1969, 306면)

역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시도한 전국적인 민간전승조사 자료집의 하나로 「民俗資料調查報告書 第三十九號」라고 되어 있다. 조사에는 이두현, 장주근, 현용준, 최길성 등이 참여하였으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부산시, 강원도, 서울시, 제주도를 조사지역으로 하고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 조

耽羅文獻 解題(1)

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서언, 조사경위, 한국부락체의 개황, 부락제당 통계자료 등의 항목에서 부락제당 조사의 의의, 조사경위 등 부락제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언에서 일제 총독부가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이는 식민통치를 위한 조사여서 문제가 있고, 그 후에 몇몇 사람에 의한 개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부락제당에 대한 조사는 현용준이 담당했으며, 그 분량은 이 책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부락제당의 유형과 개설

- 1) 유식제단
- 2) 무식제단

2. 부락별 제당과 제의

- 1) 제주시 노형동 광평부락
- 2) 애월면 광령1리
- 3) 애월면 광령2리
- 4) 애월면 상귀리
- 5) 애월면 하귀리
- 6) 애월면 애월리
- 7) 조천면 북촌리
- 8) 구좌면 김녕리
- 9) 구좌면 월정리
- 10) 성산면 삼달리
- 11) 표선면 성읍리

3. 역사적 유래

4. 부락제당 사진⁵⁾

5. 자료 제공자 명단

이 조사에는 당 실측도, 제물 진설도, 축문 등의 자료와 본풀이, 기타 제의 관련 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5) 실제 보고서에는 사진이 실려 있지 않다. 아마, 공판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인쇄 편의상 제외된 듯하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제주지역 마을제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모자람이 없을 만큼 조사대상 마을이 많고 조사내용도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11. 林和 編·李在郁 解題, 「朝鮮民謠選」(學藝社, 昭和14, 265면)

이 책 205-246면에 제주도 민요가 특별 부록으로 실려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것으로는 〈방앗노래와 가랫노래〉, 〈踏田歌〉, 〈打穀歌〉, 〈除草歌〉, 〈海女歌〉, 〈船歌〉, 〈埋葬歌〉, 〈자장歌〉 등 8종이다. 요종을 한자로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踏田歌〉는 밭밟는 노래, 〈打穀歌〉는 타작노래, 〈除草歌〉는 검질매는 소리, 〈海女歌〉는 해녀노래, 〈船歌〉는 뱃노래, 〈埋葬歌〉는 달구질 소리에 해당된다.

각 요종마다 각편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방앗노래와 가랫노래〉 186번, 〈踏田歌〉 2번, 〈打穀歌〉 7번, 〈除草歌〉 10번, 〈海女歌〉 17번, 〈船歌〉 15번, 〈埋葬歌〉 15번, 〈자장歌〉 3번까지 수록되었다. 조사지역을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打穀歌〉는 서귀포, 〈除草歌〉는 모슬포, 〈자장歌〉는 서귀포 지역 자료이다.

자료 본문은 세로 편집으로 상, 하단으로 되어 있다. 표기는 한글을 주로 하되, 한자말은 한자로 되어 있다. 주석이 필요한 것은 본문 중 해당되는 곳에 ()로 처리하거나, 줄을 달리하여 ()속에 나란히 병기하고 있다. 재보자는 본문 사이 또는 각편 번호 밑에 지역, 성명, 성별, 나이 등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일정한 원칙이 없다. 조사지역도 노래제목 밑에 바로 제시되기도 하고, 본문 사이, 또는 자료 끝에 제시되기도 하여 역시 일관성이 없다.

전국의 자료를 수록하고, 한국민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중에 제주도 민요를 같이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 민요와 함께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 부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민요에 대한 개설을 시도하는 가운데도 제주민요는 관심있게 다룰 수 없었다.

(이상 강정식)

12. 高橋 亨 著, 「濟州島の民謠: 歴史와 社會學的 觀點에서 살핀 濟州民謠」(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이 책은 「東方學紀要」別冊二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高橋는 처음에 朝鮮學會의 學會叢書 제1권으로 간행하려고 原稿의 표지에 “天理大學朝鮮學叢書 第1冊”으로 기록하였다. 또 그는 「東方學紀要」第1冊으로 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紀要 第2冊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야사도(あやさと) 연구소 제2부를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넓게는 동양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다가가시가 구상하여 만든 것이다. 곧 정식으로 연구소 제2부가 되기 전 수개월 간은 가칭으로 동양학 연구소라고 불러서 동양학연구소로 알려진 것이다. 다카하시는 이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紀要의 명칭 역시 몸소 東方學紀要라고 명명하였다. “紀要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의 것을 모은 단편 논문들은 발표기관이 얼마든지 있어서 紀要是 개인의 단행본에 가까운 형의 것이라야만 한다.”고 하면서, 朝鮮學會를 생각해서 집필해 놓은 원고를 내놓은 것이 이 「濟州島の民謠」였다. 아마 이 원고는 昭和 31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듯하다.

다카하시는 조선의 儒學과 思想史, 佛敎에 대한 관심이 깊어 「朝鮮儒學史」, 「朝鮮文化思想史」와 같은 책을 내었으나, 민요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은 昭和4년(1929) 11월 제주도의 민요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朝鮮 各道의 민요를 수집, 연구하게 되었고, 조선문학에 있어서 지극히 당연하게 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요, 특히 민요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으며, 민요는 万葉과 詩經과 같은 의미의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조선인의 魂과 人情은 민요를 통해서라야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집과 연구를 계속했던 것이다.

이 책의 민요자료들은 방언으로 표기하여 일본어로 주석을 달고, 분석한 내용도 일본어로 쓰여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목차를 번역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濟州島の民謠」 목차

朝鮮民謠 總說

- 가. 朝鮮文學에 있어서 民謠의 地位
 - 나. 朝鮮民謠의 歷史
 - 다. 朝鮮民謠研究 및 採集의 歷史
 - 라. 朝鮮民謠의 特色
- 제1장. 濟州島
- 가. 섬의 歷史
 - 나. 섬의 名稱
 - 다. 섬의 風俗
 - 라. 섬의 人心
 - 마. 進上
- 제2장. 濟州의 民謠
- 가. 섬민요의 採集 歷史
 - 나. 섬민요의 形態
- 제3장. 섬의 여자
- 가. 涼太歌 網巾歌
 - 나. 海女歌
 - 다. 身世歌
 - 라. 情歌
 - 마. 兩班의 歌
 - 바. 洪義娘
- 제4장. 杵磨謠
- 가. 4言4句
 - 나. 4言6句
 - 다. 4言8句
 - 라. 4言10句
 - 마. 4言12句
 - 사. 長句
- 제5장. 涼太謠 · 網巾謠 · 海女謠
- 제6장. 子守謠
- 제7장. 農謠
- 제8장. 京城의 謠
- 제9장. 船謠
- 제10장. 土役謠와 埋葬謠
- 가. 土役謠
 - 나. 埋葬謠

耽羅文獻 解題(1)

- 제11장. 進上과 進上謠
- 가. 進上의 種目
- 나. 進上謠
- 부 록
- 가. 北鮮의 民謠
- 나. 嶺南大家內房歌詞

위의 목차를 중심으로 대강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요를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에 관한 일목요연한 기능별 분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민요 대부분 기능에 따른 요종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창자들에 의해 대부분의 노래가 구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3장에 「섬의 여자」 항을 설정하고 있다. “兩班의 歌”나 “洪義娘”은 조선시대의 역사성을 인식한 요종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중심의 창자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맷돌방아 노래는 각편에 관계 없이 무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형태별로 4언을 중심으로 몇 음절이 가감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배가되는 句數의 증가만을 고려하여 형식 중심의 분류를 하였다.

제5장의 양태, 망건요, 해녀요에 대한 고찰은 제3장과 중복되고 있다. 제8장의 “京城의 謠”와 “進上謠”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서울에 대한 동경과 감내해야만 했던 진상을 위한 고역을 나타낸 노래들을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민요가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태어난 산물이라면, 창자의 정서를 바탕으로 살피는 것보다 사회제도나 역사적인 사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노래를 객관적인 안목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분석의 예들을 살펴보자.

아래의 예요는 杵磨謠 4언4구 중 37번의 노래인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아의 생활을 바탕으로 사실을 분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되만섬의	三官長들난
흄은중을	물지랭한다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勤務하는 중요한 관리로는 목사, 목관, 판관의 삼관이 있었다. 목사는 섬의 장관이며, 목관은 관에서 설치한 목장의 감독관, 판관은 목사의 보조이다. 이처럼 좁은 섬이지만 관장이 많아서 공사적인 일이 극히 빈번하다. 나이가 이미 70에 달한 늙은 관노도 그때까지 물을 길어 오도록 하는 것이다. 섬에는 좋은 우물이 적은데, 산에 내린 빗물이 바로 화산암의 지하로 스며 들어 바다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따라서 섬의 도움은 이 우물에 힘입어서 그 부근에 위치한다. 샘은 백 사십 여 개에 달한다고 하며, 제주읍은 특히 양질의 샘물이 풍부하게 분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제주의 官府에서도 물기는 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소중한 일의 하나이다. 이것을 맡은 노비의 괴로움과 탄식은 짐작할 만하다. 보통의 민가에서는 물 길는 것은 여자의 일이다. 그래서 섬의 여자들도 노비를 동정하여 이 노래를 부른 것이다.

다음은 신세가 중 “이여도”의 후렴에 대한 고찰이다.

섬의 여자들은 그녀의 노동이 특수할 적마다 부르는 노래도 특수해서 한 없이 노래가 생겨난다. 섬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멧돌 방아 노래가 짙이나 양면에서도 단연코 압도적이고 제주 민요라고 하면 멧돌방아노래가 연상될 정도이다. 게다가 이들 멧돌방아노래는 어느 것이나 음조가 처량해서 나그네가 그것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여진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섬의 멧돌방아노래의 곡조는 실로 처량하다. 여자들의 마음 속에 응결된 고민, 원망을 노래를 빌어서 토로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찌해서 섬의 여자들 노래의 곡조가 이렇게 처량한가, 여기에 대한 전설적인 설명이 한가지 있다. 섬의 노래에는 멧돌방아에도, 뱃노래에도, 또 농요, 기타의 노래에도 끝에 반드시 소위 전렴, 후렴이라고 부르는 이여도(또 이허도라고도 한다.)라는 후렴구가 붙고 있다. 한자어로는 離虛島라고 쓴다. 이 이허도는 공상의 섬으로 제주도과 강남 즉 남지나해의 중앙에 존재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여기를 지나는 배들은 이 근처에 오면, 우선 안심된다는 곳이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떠나는 배를 향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도록 기원하기도 한다. 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배가 이허도까지 돌아왔다면 재난은 면했겠지 하며 슬퍼한다. 노래에,

강남가건	해남올보라
이여島가	반이라한다

耽羅文獻 解題(1)

이여말란	말아근가라
마랑가면	남이나وتا
이여달난	마라근가라
이여하면	나눈물난다

이 이허도의 후렴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고려 충렬왕 3년 섬이 원의 지배하에 있을 때, 원의 목민관이 와서 제주를 통치할 때부터 원 말까지 제주는 해마다 소와 말, 소고기, 기타의 토산물을 중국에 공물로 헌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공물선은 산동남의 강남으로 향해서 섬의 서북인 대정 모슬포에서 출발했다. 어느 무렵인지는 모르지만, 강씨라고 하는 선간실의 연장자가 있었는데 이 공물선은 배의 근본이어서, 그때마다 수척의 큰배에 공물을 가득 실어 황해를 횡단하게 했다. 그런데 이들의 공물선은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로 중간에 이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가 섬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다. 어느 해 강씨 장자 자신이 나아가 공물선에 타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다. 강씨에게는 노처가 있었다. 그녀는 슬퍼서 참을 수 없었는데,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해서 마치는 부분의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불렀다. 그 곡조는 슬프고 처참하였다. 같은 탄식을 대정의 과부들은 들어서 동감하였다. 그외의 부인들 모두 동감하였다. 금새 진도에 확산되었다. 중국과의 교통은 끊어져도 뱃사람이 많은 섬의 부인들은 역시 이 노래를 공명하였다. 이렇게 근본의 의미는 이미 잊혀졌으나, 지금까지도 “이허도야 이허도”는 그녀들의 노래 앞이나 끝에 두어 노래한다. 그래서 이 기원은 슬픈 것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 곡조의 아름다움에 처량하고 쓴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600년 이후 더욱 비참한 곡조가 이 문구의 의미를 있게 된 섬의 여자들의 노래에서 모티브를 이루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이것은 그녀들의 마음이 의연히 그것에 동조하고 공명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녀들의 노래 가사도 십중팔구는 슬픈 것이다. 기뻐하는 노래는 거의 볼 수 없다. 여전히 그녀들의 인생관, 생활관이 어둡기 때문이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신세가」 중에서 시집살이와 첩을 재재로 한 노래에 대한 분석을 보자.

석달만에	씨녀에가서
찾방문을	여러다보니

씨아방은	구징기녁시여
나를보난	새들각한다
씨어멍은	암빛의녁시여
나를보난	아지직한다
씨누이는	콩상의녁시여
나를보난	호르특한다
남편내는	문계의녁시여
나를보난	앵구여든다

이 노래는 조선민요 중에서 걸작의 하나이다. 모든 古詩, 古歌는 詩興에 있어서 후세 시인의 상상에 뒤지지 않는 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 노래에서는 석달만에 시집에 들어온 기진한 며느리에 대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남편, 남편집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인가, 다양한 어물을 이용하여 흥에 의탁해서 서술하는 것이 마치 회화를 보는 것과 같다. 소박하고, 진실하며, 천의무봉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모진 것에 비하면 시아버지는 아직 부처다.

시아바니	오시는길엔
씨어머니	앞푸신눈엔
엇귀물이	소채일러라

그러나 시어머니 쪽에서도 역시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얼굴곱고	속구진각씨
너불들에	반잘귀러라
반작반작	조와라마는
속도구진	각씨일러라

그렇다면, 심에서는 신부의 이별, 또는 그것과 유사한 친정에 가는 일이 빈번하다.

가라오라	다리지말라
먼정박괴	신버신나여
신영가면	그만일러라

시부모도 나를 꺾어서 안정된 삶을 찾기에는 어쩌든 삼년이 걸린다.

가라오라	다리는집에
------	-------

耽羅文獻 解題(1)

도림들명	삼년올사난
가랜말도	업서라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가 어린애들 때문이다.

가자하난	가기는실러도
아니가진	못할일러라
대조남에	연걸닌듯이
어린아기	사경일러라

다행히 시어머니와 타협이 되어도, 아직 섬여자의 고난의 원인은 풀이지 않는다. 그것은 전에 女多男少의 항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섬에는 여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름 아닌 본부인이 아닌 첩으로 도는 여자가 적지 않게 되고, 책2의 가정고가 생기게 된다. 첩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 30세의 젊은 나이로 60, 70세 노인의 후첩으로 가는 이도 있다.

신업습도	하도나설완
갓시물에	여든님가난
두번세번	물더른밤을
씹어주랜	앙엄일러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발은 남편쪽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 이 노래도 기발한 생각을 단호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느끼게 하는 걸작이다. 첩을 지닌 본처의 애틋한 고통은 어떠한가, 장가 1장 그것을 음영해 보면 사무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살챇보리	거적채먹은들
시아시아	한집에살며
물이업선	한물울먹은들
씨아시아	한길로가랴
길도다시	빠는수시면
씨앗길은	따로나빠게

물이 부족한 섬 마을에는 사는 사람들이 구역에 따라서 물을 길러 갈 샘물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는 길 역시 한 즐기 뿐이어서, 싫어도 첩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마다 타오르는 마음의 불길은 본처 그녀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노래마다 격양되어 있는데, 먼저 남편을 증오한다.

한마실에	세척한 늬아
세숫밀에	불삼아보라
네만나명	불아니난다

다음으로 첩을 인정한다.

씨앗이면	트드레가난
가른밭해	메맛꽃가치
허원듯이	나안저서라
내눈에도	저만할것이
님의눈에는	비면하리라

본처의 증오와 원한이 최고조에 달한 노래는 어떨까.

셋달이라	그믐날에
편지한장	오왔더니
무슨편지	오왔더니
씨앗죽은	편지러라
올타그년	잘죽었다.
무슨병에	죽었더니
분홍치마	발길년이
상사병에	죽었더러

첩도 역시 相思病으로 죽었다고 듣는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 이 노래는 사실을 노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교의 훌륭함이 전에 시집식구들을 노래한 것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도 증오하는 첩을 남편은 왜 둘까. 필경 내가 얼굴이 늙기 때문이리라. 여기에 이르면, 제주도의 여인은 자신의 얼굴을 증오하게 되고, 노래는,

가지조코	넙조흔매면
전섬새가	다모여들단
가지지교	넙지여부난
병든새도	지넘어간다
비발아기	꽃이로뵈은

耽羅文獻 解題(1)

아기업는	한철일러라
꽃춘괴명	동이나맛나
나사괴영	어느동마지리
집에반초	심이지말라
반초넙히	울넘어가면
심은님이	따라저간다
넘아넘아	정드신넘아
바리거든	꽃인재바리라
꽃가불고	넙지은후애
님이만덜	내어디가리

모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그녀들의 노래여서 그네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본처에게서 원한받는 첩, 그녀들의 생활도 결코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첩들의 노래에는,

놀멍먹젠	놈의첩드난
놈의중이	반이라한다
시름업젠	새몸에가난
더사시름	지여라한다

후반 2연에서 새는 높은 지상을 마음껏 날아 다녀 어떠한 근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의 신새가 되면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다양한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는 섬의 말에도 원래 있는 것인 듯하다.

놈의첩광	술남바람은
소리나도	사물매업다
지서명광	오름에들은
등글다도	사물매난다
留鄉座首	첩으랑마랑
山馬枚子	室家로가라

유항좌수는 성 아래와 읍내의 세력있는 대가였다. 소나무 바람은 소리만큼 강하게 서 있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첩이라는 것은 자격을 가진 셈이나 실제생활은 고난이라는 것이다.

저달갓튼	안해도있저
새별갓튼	중꽃도있저

우리갓튼	간아해踐妾
이신간도	數난아니한다

본첩과 비교하면 여러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어도 그녀들의 신세관과 인생관은 심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처도 첩도 고난의 세계에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섬의 여자들은 남자를 갈망하고,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자신을 한탄한다.

사나이광	밤나무가지가
소리나명	살을매엿다
虎班울닌	위염도말꼭
衙筋울닌	상덕도말꼭
사락눈이	뒤덜흰날에
남장괴에	부릿배걸엉
남울지여	오는님뵈다

소나무 가지는 바람이 불어 아무리 높은 소리를 내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밤나무 열매는 바람소리가 높은 만큼 잎이 무성해서 그 열매를 맺으나 바람소리에 변함이 없다. 남자도 이처럼 열심히 일하면 몇몇이 집에 시집오는 사람도 있고, 첩이 되는 여자도 있다. 그런데도 여자는 한번 평판이 일면 견고한 집안에 정부인으로 시집갈 수는 없다고 말하는 예이다.

이상에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룰 수 없고 나오게 된 동기와 책의 구성, 민요자료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민간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을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데에 대해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탄을 금할 수 없으며 어깨가 무거워진다.

둘째, 몇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처럼 제주도 방언에 대한 표기법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점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 여기에 실린 자료들은 1920-30년대의 자료들로 제주도 민요 조사자료 중에서도 이른 시기 자료들이어서 현존 자료들의 원형을 재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민요의 사설을 역사,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좌혜경)